

# 아주대의료원소식

1995년 11월호

통권 제 13호

발행인 겸 편집인 / 李城洛

편집 / 홍보팀

발행처 / 아주대학교의료원

☎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신 5번지

전화 / (0331)219-5114, 6114

## 남성불임 환자에 새로운 시술법 성공

- 불임시술팀 TESE-ICSI 성공



▲ 체외수정실에서 자리를 함께 한 아주대학교병원 불임시술팀(맨 우측부터 權赫瑛, 鄭度榮 교수)

아주대학교병원원은 최근 남성불임환자의 고통에서 정자를 추출한 다음 추출된 정자를 현미경적 미세관을 통하여 난자 세포질내에 주입하는 방법인 TESE-ICSI( Testicular Sperm Extraction- Intracytoplasmic Sperm Injection) 방법으로 임신에 성공했다.

불임시술팀(權赫瑛, 鄭度榮 교수, 金鍾翰 연구장사, 黃敬殊 전문의)에 따르면 이번에 본원에서 시술에 성공한 TESE-ICSI 방법은 세계적으로도 성공사례가 드문 방법으로서 국내에서도 다섯째이스밖에 보고되지 않았고 경기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첨단시술방법이다.

본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결혼 5년 동안 임신이 안되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나 부인은 정상이고 남편은 무정자증으로 해결을 못하던 부부였다. 불임시술팀은 이들 부부를 대상으로 여러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남편의 정자생성은 정상이나 남편의 우측 정관이 방광근처에서 폐쇄되어 있어 수술적 개통이 어려운 상태였고 좌측 정관이 사혜부부터 음낭부에 이르기까지 다발성으로 폐쇄 및 결여된 상태여서 개통성 유지가 의문시 되어 자연 임신을 기대하기 힘든 상태였다. 따라서 시술팀은 TESE-ICSI시술을 하기로 결정, 부인의 배란을 유도하여 난자를 채취하는 날에 맞추어 남편의 고환조직내에서 정자를 추출한 다음 이들 정자의 일부는 채후를 위하여 냉동보존하고 일부는 ICSI로 주입함으로써 성공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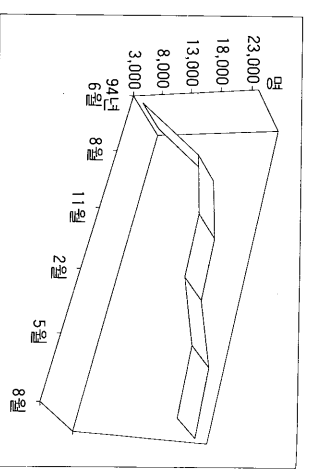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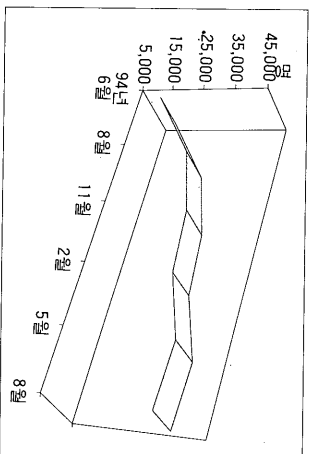
따라서 그 동안 부고환 및 정관 형성부전이나 심한 부고환 상부의 폐쇄로 임신을 시킬 수 없었던 남성불임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며 비뇨기과의 남성불임 치료에도 아주 좋은 자극이 될 것이라 전망이 된다. 불임시술팀은 앞으로 검사방법으로만 시행하던 조직검 시과정을 TESE로 직접 연결하는 시스템을 조만간에 갖추어 TESE방법을 응용하는 연구도 할 계획이다.

불임시술팀 : 권혁찬, 정도영, 김종한, 황경주, 윤인자, 홍순정, 박지영, 이은숙  
문의전화 : 219-6107, 6600

# 아주대학교병원의 진료통계

- 1994. 6 ~ 1995.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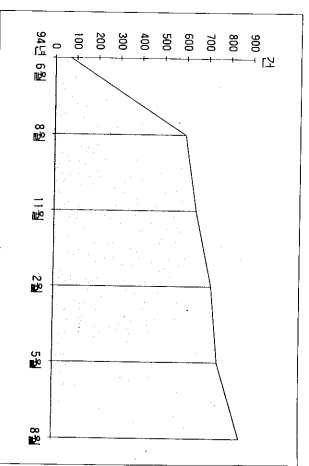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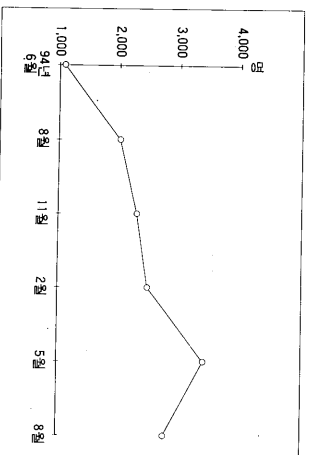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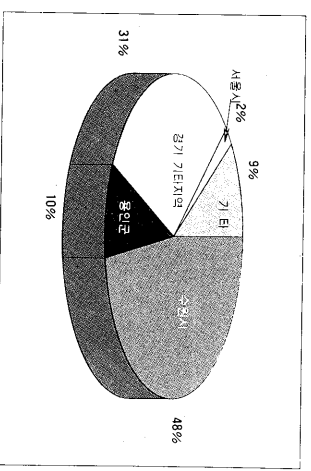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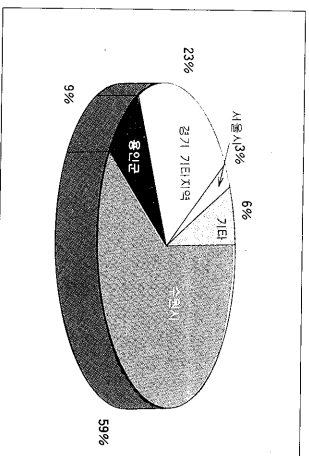
아주대학교병원이 진료를 시작한지 1년4개월이 지난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그 동안의 진료실적을 원무팀의 진료실적 종합보고서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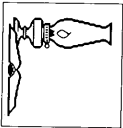


우리 병원은 진료를 시작한 94년6월1일부터 95년8월31일 현재 외래환자 연인원 43만여명, 입원환자 연인원 28만여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무팀에 따르면 외래의 경우 진료개시를 한 94년 6월부터 9천6백49명에서 12월달에 3만3천명선을 넘어 3차진료기관으로 지정(95년7월1일)된 이후인 95년 8월에는 3만6천74명으로 급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입원의 경우도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부분개원 당시인 94년 6월에 3천여명에서 12월에는 2만 명선전에 돌입, 8월 현재 2만3천여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외래의 경우 수원지역과 인근지역이 91%로 우세를 보였고, 서울지역도 1만2천여명으로 3%를 차지했다. 입원환자의 경우도 외래와 같은 유행을 보여 수원지역이 48%, 경기지역이 41%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연인원 3만8천여명이 찾아와 1만2천여명이 입원했고 나머지는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그 밖에 총수술건수는 9천9백6건, 신생아수는 1,941명,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10일, 일일평균 재원환자수는 601명, 병상이용율은 88% 등으로 나타났다.





## 의료서비스 향상과 간호전문화

우리 병원 목표 중 하나는 「진절환 병원」이다. 최근 들어 많은 병원의 사업계획을 보면 첫째가 친절 실천 또는 서비스 향상에 대한 것이며, 병원협회에서 주관하여 매년 개최하는 병원관리 종합학술회의 주제도 몇년째 「의료의 서비스 향상 방안」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병원, 의료전문직 단체 나아가 사회 전반의 관심이 되고 있음은 물론 소비자 중심의 현대사회에서 대중의 신뢰를 확실히 받게 해 주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 가운데 임상 의료서비스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로서 환자와 직접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간호서비스는 양질의 의료관리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의료서비스 향상 방안의 하나로서 간호 전문화가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있다.

간호전문화 제도는 각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사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친절면에서 향상되고, 간호사 개인에게는 전문인으로서의 만족감이 증가되는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1989년 의료법 제56조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현재 보건, 미취, 정신, 가정간호사 4개 분야에만 전문간호사 제도가 인정되어 시행되고 있고, 그 외 간호계의 독자적인 요구라기 보다는 전문의 부족을 보완하는 방법의 하나로 몇몇 전문과별로 전문간호과정 교육을 자체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신경, 응급전문간호사가 실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은 사회나 간호계가 요구하는 임상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임상간호사가 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려면 우선 환자와 그 가족을 직접 간호할 수 있는 고도의 임상지식과 기술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환자외 그 가족은 물론 동료나 학생, 기타 건강전

문직을 교육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알맞는 교육지료를 개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임상에서 나온 실제적인 연구문제들을 가지고 연구를 설계하고 이를 진행시켜 나갈 수 있는 연구능력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임상전문지문인으로서, 또는 전문상담지문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일반간호사들에게 적절한 협동지이자 지도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를 「섬세한 기술 중의 가장 섬세한 기술」이자 「과학」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기술이면서 연구관찰이 중요한 과학을 이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전문적 간호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환자를 직접 간호할 뿐만 아니라 상담, 교육, 관리,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책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전문간호사 제도를 인정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으며, 간호사들도 이를 적극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전문간호사제도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간호사들의 자기 발전적 모습을 보일 때 의료서비스 향상이 촉진되는 것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김容珣 의료지원부장



## 응급처치로 끝내지 못할 나의 응급의학

내가 응급의학을 하게 된 동기라고 한다면 1970년대 후반 의사를 주인공으로 한 TV의 외화 드라마(아마 「닥터 캐년」으로 기억된다)에서 외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응급수술이 행해지고 생명을 구하는 장면에 감동을 받은 것이다. 전문의 과정도 다른 임상과에 비하여 외상 환자의 인명소생술과 응급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외과를 택하게 되었다. 내가 전문의 과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응급의학이라는 과목이 없었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수련의사들의 의뢰에 의하여 자기과와 연관된 응급처치를 과에서 시행하다 보니 다발성 손상 환자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령의 환자 등에서 우선 순위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늦어져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었다.

응급의학을 간단히 특징지으면 급성 질환이나 손상으로 인한 신체의 이상에 대한 응급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여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환자 상태를 최단 시간내에 정상 내지는 이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시켜 계속되는 치료가 수술, 재활 효과를 높이는 임상의학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주요 외과대학 병원을 중심으로 교수들의 집중 연구분야가 임상 각과에서 장기별 세부 전공(organ/system oriented subspecialty)으로 점차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학에 뒤지지 않고, 앞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대량 출혈에 의한 속이나 감염에 의한 패혈성 속 등과 같이 혈액학적

은 면역학적으로 한 인간의 생명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발성 외상 환자에서 조차 임상 각과 내지는 세부전공의에 의하여 각 장기별 손상에 단편적으로 치중하다 보면 환자의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급성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응급의학 전문의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응급실에서만의 진단과 처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전처치에서부터 급성 질환이 안정화되는 시기까지의 종합적 처치가 포함되어야만 명실 상부한 응급의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의국의 주요 응급외상 센터들은 응급실, 중환자실, 입원병실을 갖춘 형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응급 의학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 과제는, 효율적인 응급 의료 전달체계 및 재난의료에 대한 연구이다. 자연재해나 건물 붕괴, 대형사고, 테러, 생물학적 위해 물질 유출 등의 재난에서 대량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제한된 인력이나 시설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더 나아가서는 전국각각의 응급의료 내지는 재난에 대비한 바람직한 의료 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음은 응급실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대량 출혈, 패혈증, 심혈관계 질환에서 올 수 있는 속에 대한 체계적인 임상 연구 및 실험 동물을 이용한 기초 연구를 하려고 한다. 1991년부터 박사에서의 출혈성 속 모델을 이용한 동물 실험을 시행해 오면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출혈성 속, 패혈성 속, 허혈/재관류 손상 등에 대한 기초 실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한다. 이미 뜻을 세웠으니 어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한평생 매진하고자 한다. 비록 내가 쌓아 놓은 연구 성과가 보잘 것 없더라도 이를 바탕으로 후학들이 더욱 좋은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趙 准 필 조 교 수 (응급의학과)

### <약 력>

- 1988년 일반외과 전문의 취득
- 1988~91년 국군 대전병원 일반외과 과장
- 1991~93년 연세의대 일반외과 연구강사
- 1993~94년 연세의대 일반외과 전임강사
- 1994년~ 아주의대 응급의학과 조교수

## 내가 바라는 병원, 병원이

병원이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국내 의료시장의 개방, 대규모 자본을 기초로 한 대형병원의 잇따른 개원 등이 그 징조다. 의료의 질이나 대환자 서비스에 서 뒤떨어진다면 살아남기 힘든 것은 이제 지명환 이치가 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무한경쟁을 커다란 위기국면으로만 이해를 하려는데 경쟁 자체를 자기강화의 계기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만 갖춘다면 오히려 양적,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병원도 서비스 분야에 이러한 원초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병원에 내원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병원종사자에게도 최대의 만족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병원에서 사회의 일원이 된 나는 입사때부터 병원 개원준비에 여념이 없더니 지금은 병원 전반에 관한 기획행정분야를 맡고있다. 열심히 일을 한다고 부지런히 뛰었는데 그것이 얼마만큼 병원과 특히 환자를 만족시켰는지 자신이 없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병원 전반적인 기획행정을 한 경험으로 평소 느꼈던 점과 바람을 말해볼까 한다.

병원이라는 개념이 병을 고치는 곳이라는 개념에서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 병원 시설에 대한 인식도 예전의 답답하고 복잡한 공간에서 쾌적한 호텔처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사실 근래에 세워진 많은 병원들이 시설적인 측면에서 저마다 호텔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며 환자관리에 있어서도 친절을 앞세워 환자 위주의 병원을 강조하고 있다. 어찌보면 앞으로는 병원에서 환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해야만 하는 입장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 우리 병원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나름대로 생각한 다음의 몇가지 방안이 현실로서는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지라도 신병원기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읽어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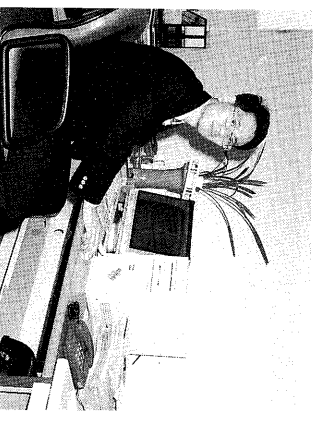
첫째로 나는 우리 의료원이 전체의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정기적인 세미나를 가졌으면 한다.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지역 사회에서의 대학병원 역할과 발전방향을 우선으로 의료진담체게문제, 응급의료문제 등 논의할 부분은 의외로 많을 것이다. 물론 이 세미나에는 비의료인도 참여시켜 현재 본원이 처해 있는 현실과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즉, 예를 들면 암센터, 심혈관센터, 이식센터, 각종 연구분야 등 중점적인 육성분야를 의료원과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아주대학교의료원이 지역의료의 중추

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확고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당노교실, 재활의학과교실, 고혈압교실 등 주민대상 정기 건강공개강좌가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한다. 보건교육 차원에서만이 아닌 전문 의료인의 설명을 직접 듣고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응급처치까지 실생활에서의 의료문제를 아주대학교병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게 민들로서 많은 지역민들이 진실되게 아주대학교병원의 의의를 기약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맞맞추어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병원주체의 문화교실을 만들어 고객들과의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유도해 환자의 치유에 도움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문화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하리라고 생각한다.

셋째로 현실적인 고객만족을 위해 우리 병원은 커다란 부분의 개조보다 작은 부분의 개선부터 이루었으면 한다.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로 환자에게 더욱 커다란 만족를 주는 경우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병원을 찾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어딘가 평상시보다 여유가 없다. 이들을 위해서 병원로비에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거나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종교실을 활성화시키거나, 환자 보호자나 면회객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 등 실질적으로 환자, 보호자들이 일차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되면 진문외적인 만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고객들에게는 더 없는 만족이 아닐까 한다.

현재 많은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바림직한 병원상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근무자인 나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그의 위치에서 작은 부분까지 배려를 해줄 수 있다면 우리 병원은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환자의 입장에 선다면 친절을 강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친절할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다. 바라건대 우리 병원이 한국 병원문화의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박정수 (기획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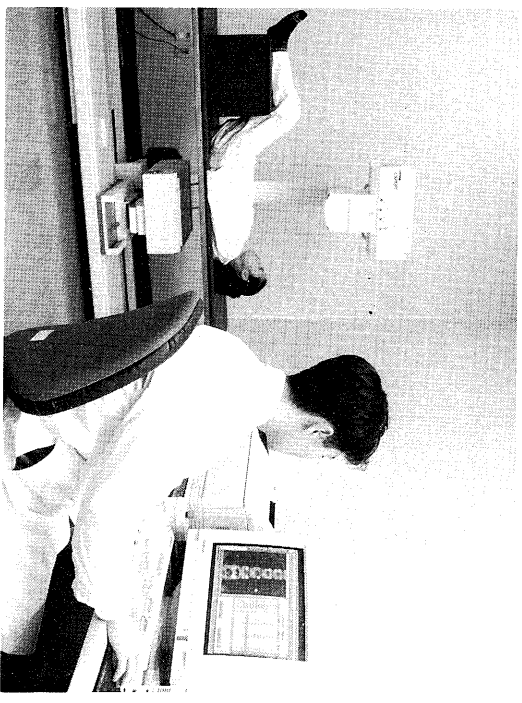
# 갱년기 건강관리

갱년기라는 낱말은 우리 귀에 매우 익숙하지만 누구든지 이 말이 자신을 향한 말이려면 과히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아마도 그 이유중에 하나는 갱년기라는 낱말의 뜻이 울버로: 전담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갱년기란 영어의 클라이막스로부터 얻어진 말로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이 시기에는 인생의 최고 절정기를 맞이 하면서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며 앞으로 다가올 다양한 신체변화를 대비하여야 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갱년기는 남여 모두에게 중요한 시기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비하여 약 10년 정도 빨리 갱년기를 경험하게 되므로 여성에게 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갱년기 건강관리란 갱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와 앞으로 다가올 각종 성인병의 위험을 조기에 진단하여 건강한 갱년기 및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고안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갱년기 증상은 남여 모두 경험하지만 여성의 갱년기 증상과 남성의 갱년기 증상이 서로 다르다. 여성이 폐경기에 이르러 되면 난소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체내 요구량에 미치지 못하여 갖가지 신체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마치 당뇨병이 인슐린 부족으로 인하여 유발되고,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으로 생기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폐경기 여성에게 부족한 여성호르몬을 보충함으로써 정상적인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고 더 나아가 폐경이 된 후에도 양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은 여성의 폐경이 일종의 노화과정으로 누구누가 나이가 들면 겪어야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여성이 40대를 맞게 되면 이미 월경이 끊어지기 1~2년전부터 인생의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시면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여자의 일생 중 1/3이나 된다. 이때부터 대부분의 여성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갖가지의 신체증상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은 병신의 일각이며 이들의 몸속에서는 더욱 심각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성호르몬은 뇌, 혈관, 뼈, 비뇨생식기 이외에도 중추신경



▲ 갱년기 건강관리는 정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사진은 골밀도 측정 모습.

계, 지방, 위장관계, 피부 등에 작용하여 각각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어떠한 원인이든 여성호르몬이 부족한 경우는 이러한 장기의 기능저하를 유발하게 되어 많은 증상과 질환을 유발한다.

남성 갱년기는 여성 갱년기와는 달리 남성호르몬의 생성 감소로 발생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 운동부족으로 인하여 남성호르몬의 기능의 변화와 체지방과다증, 심혈관계질환, 성기능장애, 관절염, 그리고 노년기 골다공증 및 골절에 의하여 건강을 위협 받고 있다.

갱년기 증상은 생활에 많은 변화와 불편을 가져오고 병원을 자주 찾게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증상보다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여성호르몬의 부족이 심혈관계질환이나 골다공증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폐경 이전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40배 이상이나 심혈관계질환의 이환율이 낮는데 이는 여성호르몬이 혈중내 지질(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여 이들 질환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호르몬은 직접, 간접적으로 우

리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이 있다. 따라서 폐경 후에는 이러한 보호작용이 없어지게 되고 혈관의 탄력을 잃게 되어 심혈관계질환의 빈도가 높아져 이들 질환에 의한 사망이 많으로 인한 사망보다도 더 많게 되는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한 문제는 골다공증과 그로 인한 골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면서 키가 줄고 등이 굽으며 민성 요통이 생기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30%에서 골다공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자에 따라 다르지만 폐경여성에서 요통의 원인 중 80% 이상이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실은 과히 충격적이다. 이미 여성일 경우 40세부터 연간 뼈 무게의 1%가 소변으로 부터 빠져나오기며 점차 가중되어 폐경이 된 후부터는 4%이상의 손실을 보게된다.

골다공증은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하여 작은 외상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척추, 손목, 대퇴골의 골절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대퇴골 골절의 경우 1/3에서는 골절 자체로 사망할 수 있고 나머지 2/3는 나머지 여생을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여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게 되는 것이다.

남성들에서 생기는 골다공증은 70, 80대나 되어야 나타나며 정도 또한 경미한 반면 여성들은 폐경직후 부터 약 10여년에 걸쳐 급속이 골다공증이 진행하게 되어 결국 젊은 나이에 가졌던 골량의 약 50% 정도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앞서 말한 심혈관계 질환이나 골다공증은 여성호르몬 대체요

법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일부는 치료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남녀 모두에게 각종 암의 발생률이 높는데 여성에게는 자궁암, 자궁내막암, 난소암, 그리고 유방암이 어느 시기보다도 많이 발생하며 남성에게는 간암, 위암,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 따라서 우리 병원의 갱년기 포로그렘에서는 인생의 절정기에 도달한 남녀에 있어서 이 시기에 흔하게 접하는 증상의 원인 규명과 더불어 각종 성인질환의 조기진단과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본원에서 갱년기에 관한 다양한 포로그렘이 개발되어 종합건강검진센터내 갱년기 포로그렘이 운영중이며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갱년기의 다양한 질병에 대한 학문적인 발전을 물론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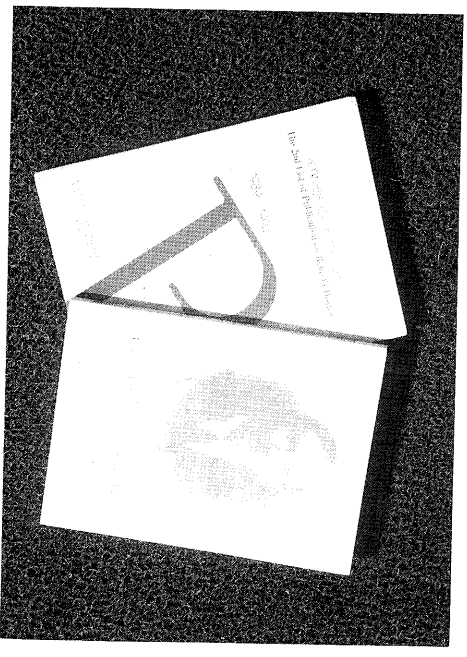


李得周 전임강사 (산업의학교실)

▶ 갱년기 포로그렘 문의전화 0331) 219-5555, 5566 ▶

## 베체트병 논문색인집 세계 처음으로 발간

우리 병원 베체트병 연구회(피부와 李得畚, 李殷素교수)가 연세대 베체트병 클리닉 方東植교수와 공동으로 베체트병 연구논문 색인집(Reference Index Related to Behcet's Disease)을 3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세계 처음으로 발간, 학계에 화제가 되고 있다. 실무자인 李殷素교수에 따르면 이 연구목록집은 전세계 베체트병 연구논문 제목을 총망미한 색인집으로 피부과, 내과, 이비인후과, 임상병리과 등 베체트병을 연구하는 의학자 및 제약업체, 언론계 등에서 널리 쓰이게 됐다고 밝히고 지난 9월4일 터어키 이스탄불대학에서 개최된 제3회 한-터어키 베체트병 공동학술 모임에서 책자를 공개했을 때 많은 학자가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후교수는 이주의대와 연세의대가 1989년부터 94년까지 베체트병에 관해 발표된 국내 논문 33편을 수록한 베체트병에 관한 연구논문집Ⅱ도 이번 색인집과 동시에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 베체트병에 관한 연구논문집Ⅱ(左)와 이 병을 처음으로 정의 내린 터어키 이스탄불대학 피부과 홀루시 베체트(1889~1948) 교수를 표지로 하고 있는 베체트병 연구 논문색인집(右)

## 나서지 만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다

기  
루한 병원생활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나갔다.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던 나는 평소 병원을 찾지 않았지만 당분간 병원생활을 계속해야 할 것 같다.

해수욕이 조금은 이른 지난 6월의 어느 날, 같은 과의 화우들과 강원도 속초해수욕장으로 졸업여행을 갔던 나는 인생의 큰 변화를 맞게 될 줄은 몰랐다. 넘실거리는 푸른 파도가 기억속에 어른거릴 뿐 이곳 아주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경추손상을 입고 누워있는 나를 발견했을 때 내 스스로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그날 사고로 인해 경추에 손상을 입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사선생님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가운데 애태우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는 가슴이 저러왔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현실이 바뀔 수는 없었다. 한 달이면 일어설 수 있으리란 기대와는 반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움직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고 긴 중환자실의 생활이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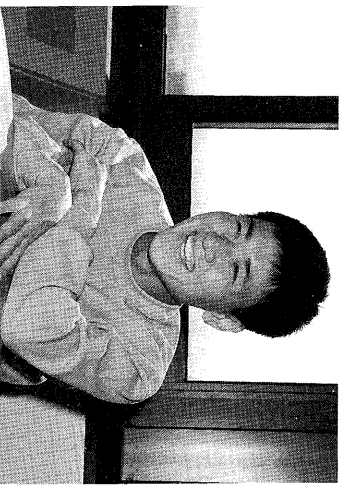
한달 이상 계속된 중환자실 생활을 마치고 일반병실로 옮길때 어느 간호사선생님이 해주신 “박훈씨 힘내세요”라는 격려의 말을 듣는 순간, 메말랐던 나의 감정이 촉촉해 지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인건비 넘치는 한마디가 새로 태어나는 나에게 낯설지만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했다. 우선, 내가 정말 힘을 내서 살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이전과는 다른 생활을 잘 견뎌야 한다는 커다란 용기가 그것이다. 알뜰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기회를 통해 그 간호사선생님께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

병동은 중환자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마치 가족같은 분위기의 병실에서 나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지낼 수 있었는데 움직이지 않은 팔다리가 호전되면 이 고마운 사람들에게 꼭 신세를 갚겠다고 마음 먹으며 활겨운 치료를 하나씩 받아갔다. 이런 시간을 보내던 중 내 스스로가 의심스러울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두 달 이상이나 움직이지 않던 팔이 점점 좋아져 지금은 비록 휠체어에 몸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병원의 이곳 저곳을 다닐 수가 있게 된 것이다. 병원의 구석구석을 다니다 보니 힘들어 좌절하기 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활한다면 어떠한 고통이 오더라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직은 불편하고 마음먹은 대로 몸이 움직여 주지는 않지만 나는 즐겁고 보람찬 하루를 위해 출근시간 숨기쁘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마다 구내매점에서 신문을 사들고 정문으로 나선다. 정문앞에 근무하고 계시는 청원경찰 아저씨, 분주하게 회전을 도는 의사와 레지던트 선생님, 환자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간호사선생님, 식사 시간을 챙겨주시는 배식이주머니 등 이러한 모습은 나의 단조로운 병원생활에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글을 통해 병원에 한가지를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 다름아닌 화장실 문제인데 병원의 이곳 저곳을 다녀봐도 특별히 불편한 것은 없지만 병원내 많은 화장실이 장애인 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불편함을 느꼈다. 장애인은 정도저자가 있지만 앞이 보이지 않은 사람, 나와 같이 휠체어를 타고 다닌 사람, 목발을 이용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 모든 장애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겠지만 최소한의 시설을 갖춰졌으면 하는 것이다. 현재 재활의학과, 재활병동, 물리치료실 등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곳에는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그 외 화장실은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인이 갈 수 있는 곳은 장애인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한다

오늘도 나의 병원생활은 바쁘다. 물리치료도 받고, 나름대로 운동도 해야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무뎠던 심리치료까지 해야하느니 말이다. 마지막으로 병원내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로, 환자에게 격려를 보내고 싶다.



박 훈 (9층 동병동 환자)



# 우 리 도 의 료 언 령 위 해 련 심 히 뛰 고 이 슴 니 다

지난 9월 단행된 의료원 기구조직 개편에 따라 의료원정실 인력교육팀, 행정처 근로개선팀이 각각 부서를 새롭게 꾸미고 업무에 돌입했다. 명칭은 낯설어도 의료원에서 분명 그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이들 부서를 지면을 통해 간단히 소개한다.

## 의료원정실 인력교육팀

9월1일 의료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인력교육팀은 의료원 조직의 안정과 성장을 통해 「21세기형 병원을 창조해 나아가갈 의료인을 육성함」을 목표로 교육훈련의 계획, 실시 및 평가업무, 국내외 연수업무, 각종 친절교육 및 교양교육 업무, 교육용 교재 발간업무, 위탁교육 관리업무, 새로운 교육개발 업무, 기타 인력교육 관련업무를 분장하고 있다. 인력교육팀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다양한 교육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개방교육체제(Open Education System)를 도입, 우수 인력에 대한 미래 전략적 연수도 실시할 예정이며 부서내 교육에 대한 지원체제 확립과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서내 교육에 대한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직원의 교육요구를 분석하여 그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교육목표를 달성시킬 과 아울러 교육성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교육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96년에는 관리자교육, 친절서비스 강화교육, 특정직무를 위한 전문교육, 조직활성화 교육, 미래의 정보화에 대비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인력교육팀

팀장 박지민  
계장 이효철  
담당 박정웅  
담당 조수진  
<5519(팀장), 5460, 5461>

## 행정처 근로개선팀

9월1일 의료원 조직개편에 따라 구인사과에서 분리되어 신설된 근로개선팀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위한 제반 노무관리업무와 점차 그욕구가 증대되어 가고 있는 교직원의 복리후생사업 지원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근로개선팀은 노사관계의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직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상담실을 운영하며 근무종의 각종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 해결하는 업무이외에 교직원 여러분의 경조사시 발생하는 각종 경조금 지급업무와 의료원 상호회를 운영하며, 원내 각종 씨름활동의 지원은 물론, 대우그물내의 시설물과 제품을 저렴하게 이용,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참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향후 계속적으로 교직원 여러분의 복리후생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근로개선팀에서는 교직원 여러분의 건강진단과 요양급여업무 등 보건위생업무도 관장하게 되며, 더 나은 의료원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교직원 여러분을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기획 등 활발한 업무가 기대된다. 따라서 교직원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 제공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근로개선팀

팀장 김홍기  
담당 이병호(노무)  
담당 이지현(복리후생)  
<6650(팀장), 6651, 6652>

## □ 金德中총장, 의료원 적극지원 방침

金德中이주대학교총장은 10월24일에 있는 의료원 교원 및 전부서장을 대상으로 한 조찬회에서 이주대학교병원을 위시한 이주대학교의료원이 제 자립을 접어가는 것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밝혔다. 金총장은 이날 오전 7시30분 의학관 선인재에서 개최된 좌담회에서 병원이 개원한지 만으로 일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영이 정상화되어가는 모습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고 밝히면서 올해 3월1일 이주대학교에 부임한 이래 빠른 속도로 펼쳐졌던 학사운영의 개혁에 대해 설명했다. 金총장은 일시제도 개선 등 국내 교육개혁과 관련하여 이주대학교의 화과통폐합, 교과목의 개선, 대학 특성화 방안, 학생중심의 학사운영,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개설 등 이주대학교의 개혁안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고 의



료원의 경우는 의무부총장에게 거의 전권을 위임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독자운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金총장은 앞으로도 의료원 식구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일하게끔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면서 병원의 서비스가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류협회장 등 일행 4명이 10월9일 우리 병원을 찾았다. 한국과 중국 양국간의 학술교류를 통해 이해관계 증진을 목적으로 방한한 이들은 우리 학교와 병원을 방문, 각종 시설을 둘러보는 한편, 金德中 총장, 李成洛 의무부총장, 徐廷鎬 병원장 등과 양국간의 의학교육 교류에 대해 회담을 나누었다.

### 인명구조술 교육 실시

응급의학과는 수원 및 인근 경기도 지역의 간호사, 양호교사, 소방대원, 구급차, 운전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인명구조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주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이번 교육의 특징은 전문인 대상으로만 이뤄졌던 것을 일반인에게도 확대해 인명구조술의 필요성과 여러 가지의 응급상황에 대처하여 누구든지 인명을 구조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

### 호스피스 자선바자회

사회사업과는 호스피스 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바자회를

**직원 연수교육 실시 예정**  
의료원은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직인간 일체감 조성을 위해 95년 직원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인력교육팀에 따르면 교육대상 직원 1천4명을 6개조로 나누어 11월10일부터 12월16일까지 매주 금, 토요일 1박2일로 실시되는 이번 직원 연수교육은 병원 인으로서의 사고전환, 실천적 친절 서비스 환경 조성 등에 교육 역점을 두었다면

서 원활하고 효과적인 연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전공의 워크숍 개최

교육수련부는 지난 11월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23명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의료과실 현황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도고 글모리콘도에서 실시된 이번 워크숍의 첫날은 고려의대

醫術교수가 「의료과요」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이에 대해 분임조 토의를 갖고 둘째날은 진료부원장 洪昌虎교수의 「병원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사례연구 및 대책」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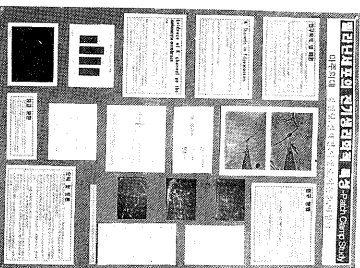
### 부경대 부총장 방문

부총장, Ji Xianlin 동양학과 교수, Wang Xue Zhen 교무위원

부총장, Ji Xianlin 동양학과 교수, Wang Xue Zhen 교무위원, Li Tao 국제학술

## 논문 포스터 최우수상 수상 · 피부과학교실

피부과학교실(姜元醫, 田世貞, 李孟魯, 李敏泰, 李成洛)은 96년 대한피부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벌어진 논문 포스터 전시회에 「멜라닌세포의 전기생리학적 특성」이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출품, 최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지난 10월13일, 14일 양일간 서울 세리톤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모두 1백40여점의 논문 포스터가 출품됐는데 이주대의대에서 출품한 멜라닌세포의 전기생리학적 연구가 영광을 차지한 것은 이 연구가 세계 처음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는 후문이다.



이  
있  
의  
계  
이  
방  
는  
로  
장  
교  
가

개최했다. 지난 10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병원 후문 공간에서 열린 이번 바자회는 3차 진료기관인 우리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내 대부분의 말기 암환자들이 주 3회이상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과 관련 하여 이 환자와 보호자들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임종을 맞을 수 있게 하는 호스피스 활동을 위해 마련됐는데 사회사업팀에 따르면 이번 바자회는 모두 1천4백여만원의 기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의대, 「생명역제」 개최

의과대학의 축제 행사인 제5회 「生命醫祭」가 10월 26일부터 27까지 3일동안 의화관내에서 열렸다. 첫 째날은 오후 6시부터 제3강의실에서 의과대학 학술회와 CODON(분자생물학연구회)의 주관으로 학술제가 열렸는데 OUTBREAK(신종바이러스 출현)이란 주제로 연제발표를 가졌다. 또한 각 동아리에서는 그동안 갖고 뒤은 솜씨를 선보인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 무의촌 진료 봉사

우리 병원 무의촌 진료봉사팀(趙炳日교수의 8명)이 지난 10월26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대부도)에서 2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활동을 벌였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력의 전기고장수리등 전기서비스와 진료봉사서비스를 혼합한 복합형태의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기관과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진행 된 것이 특징이다. 순환기 내과, 내분비대사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등이 참여한 이번 무료진료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70명이다.

### 정신건강교육 개최

정신과는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지난 29일 금요일부터 격주로 실시하고 있다. 정신건강교육은 정신분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환자나 그 가족들이 겪는 불필요한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덜고 치료와 치료후 재발을 막기위해 마련됐다. 자세한 사항은 0331-219-5808로 문의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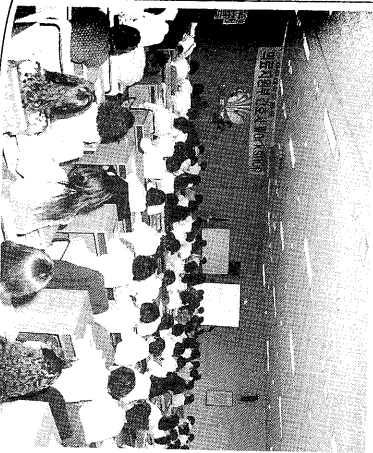
## 의대, 교수 워크숍 개최



의과대학은 96년에 실시되는 대학평가에 대비, 의과대학 자체평가를 위한 교수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용인 대우연수원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의과대학 교수 80여명이 참석했는데 李鎭榮 의과대학장은 「우리 의과대학의 교육목표」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재 학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우리 의과대학에 적합한 학제편성 방안에 대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일반의과 金明旭 주임교수는 의학 전문대학원 제도 소개를 통해 현재 6(2+4)년제의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8(4+4)년제 학제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의료비상승 등이 문제점으로 남는다고 설명하고 8년제가 현실화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생리학교실 文晝晷 주임교수가 지체 조사한 의과대학 평가결과를 참석자들에게 설명했다.

## 의료지원부 간호사 워크숍 개최 - 용인 대우중앙연수원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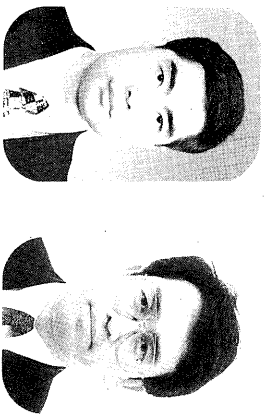
의료지원부는 지난 10월21일과 22일 간호사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인 대우 중앙연수원에서 「간호사 워크숍」을 가졌다. 개원 이후 4번째로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신영호흡관원 김경호 소장의 「바람직한 간호사상 정립」이라는 특강과 함께 「전문직으로서의 자율병동 모델 개념도입과 적용전략」이라는 주제의 분임토의가 있었다. 金容燬 의료지원부장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 분임토의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간호사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으면서 진지하게 워크숍에 참가해준 간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신규 ▶ - 10/1

趙基洪 조교수(신경외과학교실)

김성진 부교수(생화학학교실)



◆보직 ▶ - 10/16

李得周 전임강사(산업의학과학교실)

보: 종합건강진단센터소장

◆승진 ▶ - 10/1

▲조교수 → 부교수

趙南翰(예방의학교실), 朴明哲(성형외과학교실), 卓承濟(순환기내과학교실), 羅恩宇(재활의학과학교실)

▲전임강사 → 조교수

林浩永(월역중앙내과학교실), 蘇東文(홍부의과학교실), 徐光顯(일반외과학교실)

◆전보 ▶ - 9/6

韓怡薰 조교수

의화유전학교실 → 소이과학교실

<이상 교원>

◆승진 ▶ - 10/1

▲5급→4급 유문숙 ▲6급→5급 한덕희 김홍기, 황인열, 강홍구, 김정란, 이순옥, 함형미 ▲7급→6급 윤학근, 노재봉, 서남희, 임연희, 이미선, 강창진, 김영선, 신은숙, 황우섭 ▲8급→7급 박창근 주황보, 이병영, 김활용, 이서구, 권우식, 이미영, 김선휘, 이영희, 김연수, 안성만, 서형범, 사예숙, 김영선, 최미숙, 소지은, 나현자, 박선미, 박규현, 한금렬, 김미숙, 고은정, 이지현, 박영희, 경미숙, 김영연, 송기호, 노지영, 이경하 ▲9급→8급 한제희, 채옥미, 양윤정, 오영미, 김영승, 안교준, 이윤수, 이성희, 장미숙, 이은자, 최학균, 허남열, 이민

숙, 차주목, 전재원, 박수경 ▲10급→9급 이한성, 김종각, 윤영희, 강미경, 유영수, 고선희, 이의연, 손은미, 노인숙, 최도관, 정항숙, 변형경, 이영미, 김은숙, 이선주, 오연수, 이정희, 김현숙, 고창은, 김현자, 홍금숙, 서미지, 강영수, 이희용, 정수미, 송영숙, 김기상, 공명순, 김희영, 박복순 등 92명.

◆전보 ▶ - 10/1

◆홍보팀 : 이호영 ◆인력교육팀 : 이

효철, 박정웅 ◆기획팀 : 정재영 고혜

숙 ◆총무팀 : 박수경, 임상빈 ◆구매

팀 : 배창욱, 홍혜원 ◆관리팀 : 이향래, 이경숙, 김기상 ◆근로개선팀 : 이

지현, 이병호 ◆시설관리팀 : 경미숙 ◆교무팀 : 권오일, 박진명, 안병화, ◆학생팀 : 엄인혜 ◆교무팀(교실) : 채옥미, 전재원, 구남희, 최춘자, 김소정, 김희성, 이선희, 김정민, 이영옥, 김지현 ◆원무팀 : 안환남, 임인수, 김진식, 최석철, 채정은 ◆사무팀 : 임문채, 정서진 ◆사회사업팀 : 윤영희 ◆정보개발팀 : 이은자, 이성희, 김정겸, 임미선, 이현진, 김정현, 허미경, 진선애, 신지숙, 안미화, 박보현, 김영민, 김은경, 한모순, 이수정, 정숙영, 이은영, 김희정 ◆임상병리과 : 김춘구 ◆의과학연구소 : 박수영, 김묘원 등 58명.

<이상 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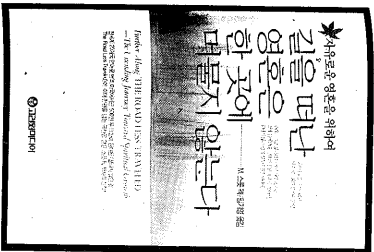
## 아주대학교 평생교육원 개원

아주대학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들이 폭넓은 교양과 실질적인 사회지식을 쌓을 수 있게끔 평생교육원을 개원했다. 지난 10월6일 개원식 및 제1기 입학식을 가진 평생교육원은 문학, 어학, 생활법률, 컴퓨터, 건강강좌 등 생활전반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우선 강좌를 개설하고 관련 단과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1기 강좌에는 1백42명의 수강생이 등록하여 11월 현재 강의가 진행중인데 내년 1월8일부터 2월9일까지 강의가 진행되는 제2기 강좌의 경우 수강신청은 오는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경영대 내에 있는 평생교육원 교학관에서 받을 예정이다. 평생교육원의 강의시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 과 목 명	요일	시 간	강 사	강 의 실
현대인의 건강생활	월 수	15:00~16:50	이대 교수진	경영관
현대문학의 감상과 이해	수 목	오 전	조창환 교수(국문과)	경영관
생활 영어	목 금	오 후	김준민 교수(영문과)	경영관
현대인과 생활법률	월 목	오 전	법학과 교수진	경영관
부모역할 향상과정	수 목	오 전	사회과학대 교수 및 외부강사	경영관
정보의 컴퓨터의 이해	화 목	오 후	정보 및 컴퓨터공학부 교수진	에너지 센터

1. 수업시간 오전 : 10:30~12:20, 오후 : 14:00~15:50
2. 교육기간 : 96년 1월8일 ~ 2월9일(주 3회, 5주)
3. 원서교부 : 평생교육원 교학과 및 대학 정문 수위실
4. 접수장소 : 평생교육원 교학과(경영관 116호)
5. 수 강 료 : 각 과정당 98,000원
6. 수업시간이 겹치지 않는 경우 2과목 이상 수강 가능
7. 일정 모집정원에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8. 문 의 : 평생교육원 교학과 0331-219-2796

# 「길을 떠난 영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를 읽고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이자 경영교문, 베스트셀러 작가인 M.스콧 펙 박사의 「Further Along the Road Less Traveled」가 우리 병원 정신과 임기영교수에 의해 「길을 떠난 영혼은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삶은 복잡하다》라는 화두로 시작되는 이책에서 저자 M.스콧 펙 박사는 《길》이란 최종적이거나 확정적인 단어가 아니고 진정한 순례자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 가야 할 끝없고 고통스런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1부 「잡다한 성정을 항하여」 2부 「나는 누구인가」 3부 「저신민의 신을 찾아서」로 구성되어 있는 이책에서 저자는 《성장》이란 지속적인 과정이기에 이를 위해서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고통을 감내하고 극복하는 용기, 맺기를 버리지 않고 약에 대해 정면으로 맞서는 진정한 용기가 끊임없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걸고 있는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문을 가져보고 신비에 대한 갈망과 호기심을 갖게된다면 어느새 진리의 조각들을 발견하고 그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맞추어 나갈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또한 이러한 성장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만나야 된다면서 그때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관항처 않다는 것》, 《완전하지 않다는 것》, 《겉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깨어짐의 순간을 맞볼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죄의식의 순간, 회개의 순간,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줄 수 없는 순간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며 그렇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는 것을 포함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이 길이다」라고 한가지만을 지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순하고 직선적인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변화와 거기에 따른 변화되는 능력이 인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을 홀로 가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짊어지고 있는 짐과 고통, 슬픔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 나눔의 미덕이 더욱 간절할 요즘 나 자신과 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듯이 다른 사람의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삶이 될때 우리의 여행이 궁극적으로 가치있게 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 M.스콧 펙 박사가 자신의 정신적 성장과정과 풍부한 임상경험을 토대로 기술한 이 책을 이 가을에 추천하고 싶다.

유 지 선 (의무부총장실)

## 인어들이다 뇌질환

인간의 신체는 물론,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뇌. 중요한 그 역할만큼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흔히 뇌진탕, 뇌졸중, 뇌좌상 등 뇌 관련 질환의 구분이 모호해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 확실한 개념을 정리해 본다.

### 뇌진탕(Cerebral concussion)

머리에 손상을 받아 뇌가 단단한 두개강 안에서 흔들려 일시적으로 뇌의 모든 기능이 중단되었다가 몇분내로 완전히 회복되는 경한 뇌손상을 말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의식의 일시적 상실로서 환자에 따라 깨어나서도 혼돈상태를 보이거나 측두엽(머리 옆부분)의 손상으로 기억상실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 뇌좌상(Cerebral contusion)

뇌좌상은 뇌진탕에 비해 뇌손상으로 뇌실내에 출혈을 일으키고 뇌부종이 발

생하여 두개강 내압이 상승되고 의식상실이 몇분이상 지속되고 때에 따라서는 몇시간, 몇일간 혼수상태에 빠지는 중등도 내지 중증 뇌손상을 말한다.

### 뇌졸중(Cerebrovascula accident)

뇌졸중은 원인에 따라 허혈성과 출혈성으로 나뉘는데 허혈로 인한 뇌졸중은 뇌혈관의 어느 부위를 막는 뇌색전증과 혈액응고를 증가시키는 혈액학적 장애나 질병이 뇌혈관벽에 혈전을 형성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 공급부족으로 발생되는 뇌혈전증 등이 있다.

출혈로 인한 뇌졸중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뇌혈관이 파열되어 뇌막이나 뇌조직 속으로 뇌내출혈을 일으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것인데, 혈관구조가 약해져 늘어나 있는 부위에 압력이 증가될 때, 그 부위가 파열되어 출혈이 발생한다. 가장 보편적인 전조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심한 두통이며, 이때 오심과 구토, 시력장애, 운동

손상, 의식상실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두개강 내압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김 창 희 수간호사 (간호교육팀)

### 제2차 간호사워크숍 제1회

한없이 무르익어만 가는 10월의 어느 날. 나무가 미련 없이 잎을 버리듯, 뻑뻑한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미련없이 벗어나 용인 대우인력개발원에서 개최되는 간호사 워크숍에 참석차 버스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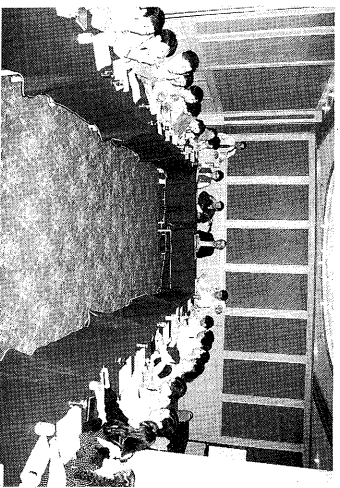
「이미지 메이킹이란 정점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미처 손을 못 찼던 부분까지도, 이미 포기해 버린 부분까지도 총체적으로 메이크하는 것」... 병원장님의 격려사에 이는 CTTI 이미지 메이킹센터 소장님의 결코 잊을 수 없을 강의. 일상생활에서의 무관심이 깨어지는 느낌이었다. 열렬하게 진행되는 강의 속에서 우리는 기쁘어야 할, 그리고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와 더불어 앞으로 변화될 이미지의 새로운 바람을 기대감 어린 마음으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어 여흥프로그램으로 「헌머음을 향하여」라는 이름하에 열린음악회와 사랑나누기 순서가 진행되었다.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축의 섬세한 배려로 한 마음이 아니되면 도저히 진행이 안 될, 「헌머음의 분위기」 그 자체를 만들어 줘야 했다. 이 속에서 무심히 잊고 있었던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며 확인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 속에 포함된 내 존재의 의미도 살짝 얻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약 3백30분이라는 최대의 시간 투자로 이루어진 분임토의 및 발표. 10개조로 나누어져 전문적으로서 자을 병동 모델 개념도입과 적용전략이라는 주제하에 이루어진 이번 분임토의는 분야별로 「OOO위원회」라는 쉬운 개념으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 만들 수 있는, 민들민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들로 불꽃 튀는 분임토의가 이루어졌고 문화위원회, 각종 교육위원회, 근무표위원회 이외에도 아주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10개조의 발표자가 나오는 순견마다 마음 설레이기도 하고, 발표가 끝난 후엔 우리들 내부에 잠재되어 있거나 하고자 하는 강한 의욕을 가슴벅차게 느끼기도 하고,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들에 섬뜩 놀라기도 했던 순간들로 장식되었다.

아무튼 이번 워크숍은 미련없이 일상을 벗어나 많은 예기치 않던 것들을 들쭉 얻어 온 느낌이다. 한없이 무르익어 가는 가을 속에서, 우리들 삶의 성숙을 함께 느끼며,

### 직원발전위원회 워크숍을 다녀와서

아주대학교의료원 의료원장 지문기구인 직원발전위원회는 직원들의 지위향상과 의료원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 모임이다. 각 부서의 대표로 선발된 30명의 직원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의료원 발전에 장애가 되는 문제점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 9월28일, 29일 1박2일 동안 도고에 위치한 클리리온도에서 워크숍을 가졌다.



그 동안 각 부서에서 의견을 귀동냥해 정리한 것들의료원장에게 건의하는 지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설레임도 있었고, 우리의 의견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무겁게 했다. 회의가 시작되었을 때 어색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지하게 토의가 진행되면서 우리 모두는 이미 「아주대학교의료원」이란 한 배를 탄 동반자였다. 짧은 기간 워크숍을 통해 내가 느낀 것은 아직까지 의료원에 미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부서 이기주의를 앞세워 자기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서로 배려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또한 의료원 제 지리잡기는 모든 교직원들의 몫이진 몫이라고 생각했다.

직원발전위원회가 직원들을 위해 열심히 땀다면 어떤 정에에 부딪히도 암흑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반딧불처럼 의료원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새롭게 만난 사람들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터지종에 대한 애로사항도 알게 되어 더 겸손한 자세로 매사에 총실해야 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건의사항이 백퍼센트 이루어 진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지만 최대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고 은 (의료지원부 - ICU)

정 진 주 (원무팀)

# 다다하게 일하는 여성이 아름답다

김 정 란

나 는 내가 여지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관심이 많다. 특히 아름다운 여성에게는 더욱 더 관심이 많다. 최근 에 나는 세명의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다. 「일본은 없다 1, 2」를 쓴 전여욱이라는 기지와 「나의 테미는 사람 나의 프로젝트는 세계」라는 책을 쓴 건축가 김진애, 「이의 있습니다」를 쓴 배금자 변호사이다.

이들은 그 동안 느슨해졌던 내 긴장의 줄을 팽팽하게 당겨주고, 모르는 사이에 인주하고 있던 나를 끌어내며,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리며 나를 초조하게 바쁘게 만들었다.

이들은 정말 멋있고 대담하다. 이 대담함은 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라서 더욱 크게 보인다. 전여욱 기지는 스스로 자신은 전사(戰時)형의 인간이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더 잘 견디고 힘이 솟는다고. 그래서 처음 「일본은 없다」를 쓴 후 들은 많은 이야기는 더욱 전의를 불태우게 했고 따라서 죽을 때까지 일본을 비판하는 글을 써서 평화형의 인간이 될 세대에게 바칠거라고 했다. 물론 일본에 대한 저자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나의 한나라에 대한 국가관에 적잖이 수정을 가할 수 있었고, 한나라를 상대로 그토록 거침없이 비판할 수 있는 용기가 놀라웠다. 그 뒤 나는 「일본은 있다」라는 책도 읽어 보았는데 평화형의 저자가 전의를 불태우며 쓴 글이 아니어서 이 책을 보면서는 줄음을 참아야 했을 정도로 전달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건축가 김진애는 프로로서 복합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풀어내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 프로란 일이 안 풀릴 때, 소강 상태에 있을 때, 할 수없이 제약사항을 인정해야할 때 맥이 풀리고 힘이 들어도 이러한 하강곡면 자체도 받아들여야 하며, 또한 나의 역할이 확실치 않은 일은 전력투구 할 수 없으므로 「노」라고 말하고, 일단 「예스」한 일에는 진흙탕 속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쟁겨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전력투구」란 말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마지막으로 배금자 변호사는 주장하는 바가 힘이 있고 주저하지 않으며 당당하다. 자신을 이토록 용감하게 만드는 원천은 분노라고 표현하며 분노할 때 분노하는 것은 살아있음과 깨어있음의 징표라고 하면서 어떤 역할과 부조리에도 죽어 있거나 잠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어 가슴

벅치게 한다. 그런데 이 세 여성을 이처럼 만든 공통적인 원동력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사회전반에 뿌리박혀 있는 성차별적 시각으로, 그에 의해 무수히 거부당하고 깨어지면서 그로 인해 더욱 목표를 향한 열과 성을 집중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지」라기 보다는 「여기자」로 불리우며 남지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체험해야 했고, 「여자가 무슨 공대나 공대」로 시작해서 넘어야 했던 수많은 고개들. 또 고시실 입성에서부터 편사가 되기까지 포기시키고 탈취해야 했던 남자들의 기득권. 나의 경우는 다행히(?) 국민학교 5학년 이후 전 학창시절을 여자애들 틈에서 보냈으며, 현재 내 직업인 의무기록사들도 여자가 대부분이고 특히 수도권에는 그 경향이 심해서 지금의 내 위치까지 오는 동안 남자와 경쟁해 본 적도, 남녀차별로 인한 좌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면서 나에게겐 그러한 원동력이 없었다고 변명과 자위를 해보지만 그러나 나머지 부분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부딪혔던 일들문썸, 나는 확실히 부족했고 일이 안풀릴 때는 슬럼프에 빠져 허우적 거린적이 많았음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수 위의 사람들은 뭔가 다르고 배울점이 있다. 이들은 내가 나를 향한 도전과 거친과도, 모진바람을 평형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헤쳐나가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고, 소신껏 자신있게 당당히 일하는 여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었으며 나도 아름다운 여성이 되기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이 가을에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이 있다면 이 책들을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다.



김 정 란 (의무기록팀장)

# 외래진료시간표

11월 1일 현재  
(□) : 특수진료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소화기내과	이성민	월,수,금	금	소화기내과동원환	
	조성원	화,목	금	간질환	
내과	김진홍	화,금	수	담도질환	
	김기백	월,수	금	소화기내과동원환	
5565/6	김영수	토	월,목	간질환	
	박영진	토	화		
순환기내과	최병일	월,화,수	수,금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탁승재	화,수,목	수,금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5565/6	김환수	금	화,목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신준환	목,토	월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5565/6	김민		수		
	조윤경		목		
중환자내과	이이형	월,수,금	수	폐암, 기관지염,식, 폐결핵	
	황성철	화,목	월,목,금	만성폐질환, 폐암, 폐결핵	
5565/6	박태범	토	화		
	내과비대신과	김현민	화,수,목	수	당뇨병,특수크리데, 내분비,간염,신
5565/6	정윤석	월,금	화,목	수	당뇨병,특수크리데, 내분비, 폐암,당중
	내과비대신과	김도원	월,수,금	목	특수진료,식구질환
5565/6	김도원	월,수,금	월~토	고혈압,수분과 전해질 장애	
	김홍수	화,목,토	목	복막염,수분과 전해질 장애	
혈액종양내과	김호철	월,수,금		혈액,종양	
	박재후		화,수,금	혈액,종양	
5565/6	임호영	월,화,목,금		각종 고혈압,진료	
	김현수		목		
알코올중독내과	박혜진	화,금	화,금	기관지,신식,알레르기,질환,류마티스	
	남동호	월,수,토	월	알레르기,염반,류마티스	
내과	내과	월~토	월~금		
	홍창호	월,수	금	청소년질환	
소아과	김성환	화,목	월,목	소아신경,질환	
	배기수	화,금	월,목	소아신경,질환	
55619	이수영	월,목,토	수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정조원	월,수	수,금	소아신경,질환	
신경과	박문성	금	월,화,목	미국에 신생아질환	
	김문규	토	월~토	*화,목,우주,육아지도,괴실,문양	
55656	김민준	월~토	월~금		
	김현주	월~토	월~토	유전질환,유전성염색체	
신경과	최근	화,목	목	간질,뇌혈관,질환	
	김정성	월	화,수,목	간질,뇌혈관,질환	
55656	주인수	화,수,금	금	말초신경질환,근육질환	
	권오영	월	화		
정신신체과	이호영	토	월	스트레스 및 불안장애,크리데	
	정영기	해위안수중	수	뇌기능 및 수면장애	
5814	이영민	월,수,금,토	수	불안장애,우울증	
	이영문	월,토	목	정신분열증 및 치매진료	
5917	노계선	화,목,금	월,금	우울증 및 신경장애	
	김원진	월,금	월,금		
내과	이성낙	월(예약)		특수진료(내과비대신과)	
	강원형	월,목	월,화(예약)	헬리만 대표질환	
5917	김형일	수,금	화,금(예약)	특수진료(가이만역,철환)	
	이은소	화,금	화,금(예약)	간신,아드름	
일반외과	레이저치료	월~토	월,화,금	예약에 의함	
	김영욱	월,수	간,담도		
5758	수의관	해위안수중			
	조윤관	화,목	화	심부전질환	
5758	홍정	화,목	화	소아외과	

진료과	의사명	오전	오후	세부진공
일반외과	왕희정	금	화	간 및 20식
	서광욱		월,목	담낭질환
5752	오창권	월,금	수	신장0식
	박희봉	토	수,금	유선질환,두경부
정형외과	이철주	금	월,수,금	신장 폐,식도
	소동문	월,화,수,토	화,목	신장,폐,종격동
5545	류현영	수,목,토		폐,식도,종격동
	안재인	금	수	소아신경외과
5564	김병석	월	수	골 및 연부조직,종양외과
	민병천	화	금	술관질환,간관질
5564	전창훈	목	화	직장외과
	원배연	수	목	인공관절외과
5545	조경기	월~토		
	조기홍	수	월	중양위,뇌혈관질환
5564	윤수환	화,금	화	소아신경외과
	안영민	월,목	목	척추질환 및 외상
5564	안영환	토	수,금	
	김관식	월,수	월,수	수부외과,미세수술,미용수술,신장,7형,요양,당뇨병
5567	박영철	화,목	화,목	수부외과,미세수술,미용수술,신장,7형,요양,당뇨병
	이병민	금,토	금	수부외과,미세수술,미용수술,신장,7형,요양,당뇨병
5564	오기석	월,목	월,수	부위암
	유희석	화,목	화,목	부위암
5567	권혁진	화,금,토	화	불안,불강경수술
	김석중		월,수	
5567	장기홍	수,토	수,금	부위암
	김행수	월,금	수,금	고혈압,신부,초음파
5567	양정인	수,토	월,목,금	고혈압,신부,초음파
	김상진	목	월,화,목	
5567	이창연	화,토	금	말,초저체,백내장
	박기천	월,금	월~금	MRI,초음파,백내장
5567	김성민	월,수,금	월~금	각역 및 안안부,백내장
	김정민	월~토	수	
5567	박충준	해위안수중	수	이과,뇌질환
	전영범	화	목,금	이과,두경부외과
5567	김창규	수,토	월	비파,알레르기
	김주현	목	화	비파,알레르기
5567	고중화	화,목,토	화	두경부외과
	김영수	월	수,금	
5585	김세중	목	수,목	결석,소변노
	정도영	목,토	화	종양
5585	김영민	화,수	월,목	남성내과
	이일영	월,금	목	척수신상
5802	나은우	화,목	월,목	뇌졸중 및 뇌손상환자의 재활,정신치료를
	문혜원	수,금	월,목	통증과 근육 및 말초신경질환의 재활,신경진단
5544	임신영	월,토	수	소아재활
	전미선	화,목,금	화	중앙
5544	정호근	월,목		직업성 질환
	이경중	화,수,금,토		직업성 중독
5869	이득주	월,수,금		간질환,중환자진
	황병남	월,화,금	수,목	간질환,아드름,유선질환,미용수술,신장,7형,요양,당뇨병
5869	이재희	수,목	화,금	유선질환,아드름,유선질환,미용수술,신장,7형,요양,당뇨병
	이영석	토	화,목,수	유선질환,아드름,유선질환,미용수술,신장,7형,요양,당뇨병
5869	이영석	월,수,금,토	화,수,금	유선질환,아드름,유선질환,미용수술,신장,7형,요양,당뇨병
	이영석	월,수,금,토	화,수,금	유선질환,아드름,유선질환,미용수술,신장,7형,요양,당뇨병

※ 1 상기 진료시간표는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 은 지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입니다.  
3 견화문은 219(국번)를 누른후 해당 진료과 및의 번호를 누르십시오.

이주대학 의료료원 주요 전화번호 안내  
대표전화 : (0331)219-5114, 6114 / FAX : (0331)216-6556  
응급의료센터 : 219-6000 / 종합건강진단센터 : 219-5555 / 종합안내센터 : 219-5546